

그루터기 운동

이사야 6:1-13, 로마서 9:27-33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램넨트 운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제목과 함께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란다. 이사야는 윗시야 왕과는 사촌지간이다. 그러니까 왕족이다. 왕족 출신 선지자다. 또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윗시야 왕 때 태어나서, 그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고 그 아들인 므낫세 왕 때 활동했던 기록은 없지만, 그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섯 왕을 섬기면서 활동했던 것이다. 또 이때는, 유대 나라에는 북쪽에 바벨론과 앗수르, 아람과 북이스라엘나라라는 강한 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대를 자주 공격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앗수르에 구원요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앗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앗수르가 유대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힘을 빌리려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했다. 지금과 그때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가? 비슷하지 않다. 지난 15일에는 쿼어추체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시청 앞에서 행사를 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때도 이런 짓들을 했다. 남색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와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래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3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한다. 그러나 40~66장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다, 구약의 복음서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윗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말이다. 윗시야는 52년이나 정치를 했는데, 잘 했다.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조공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아라비아 상인들과 도로를 트고, 광업 농업을 부흥시켰다. 군대를 정비하고 요새를 건설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가서 풍요, 안정이라는 축복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잊어 가게 되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 은혜를 입었던 것인데 교만에 빠져 버렸다. 역대하 26:16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그 후로 요담이 나오고, 이주 나쁜 아하스 왕이 나오고, 그 후에는 성군 히스기야가 나왔다. 히스기야왕 때 앗수르와 싸웠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신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앗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이사야 때 일어났다.

1. 램넨트의 의미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었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간음했다. 이럴 때, 이사야 7:3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사야를 보고, 첫째 아들 스알야습과 손을 잡고 내려가서 말하라고 하셨다. 스알야습이라는 말은 그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배반하고 구하지 않지만,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램넨트’라는 말이 나온다. 이사야 6:13에는 그루터기라고 했다. 램넨트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킹 제임스 역(KJV) 성경에서는 substance라고 했다. 근본, 본질, 뿌리라는 말이다. 신국제역(NIV)에서는 stump라고 했다. 스바냐 2:7에 보면 남은 자를 remnant라고 표현했다.

(1)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램넨트는 후대, 씨앗(seed)을 말한다. 언약을 잘 전달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흘러갈 것이라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은 에덴의 동쪽, 타락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벨은 사단이 시기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언약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이다.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에녹이고 노아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간당간당하게 전달되었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해졌다. 수십 년 전에 나왔던 미국 드라마 중에 <뿌리>라는 작품이 있었다. 그게 램넨트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다. 그는 키타쿤테라는 아프리카 왕자의 후손이다. 키타 왕국의 왕자라는 말이다. 이 사람이 부하 병사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백인 노예상인들을 만나서 싸웠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팔려왔는데, 노예는 이름도 없지 않다. “네 이름은 오늘부터 톰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키타쿤테, 키타 왕국의 왕자다.” 이러니까 계속 얻어맞고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또 잡히고, 도망치고 또 도망친다. 그래서 도끼로 발을 찍어버리고 그랬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의 후손이 알렉스 헤일리이고, 그가 자기 뿌리를 찾아서 쓴 소설이 이 작품이다. 자손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된 것이다. 그게 램넨트다.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나는 53세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했다. 그때 류목사님은 나이 50 넘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시더라.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제 시작했는데 희망이 없다고 하니깐. 그래서 “목사님은 50 안 되실 줄 아십니까? 금방 50됩니다.” 그랬었다. 지금은 68세이다. (웃음) 지금은 그런 말 안 하고, 모세는 80에 시작했다 그러시지 않나. (웃음) 왜 그런데 그런 말을 했겠는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것이다. 나도 그것 때문에 참고민을 했었다. 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보면, 목사 자녀, 장로 자녀들이 율법에 찌들어 있다가, 외국에 나오니까 다 교회를 떠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찌다가 복음을 듣는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안 변하는데, 아이들은 이 메시지를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 저 램넨트, 저 seed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겠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램넨트라는 말에는 또 찌꺼기라는 말도 있다. 남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 찌꺼기같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는가. 짧은 시간에 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와 신뢰심을 가진 이사야,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이사야가, 서민과 동족을 향한 애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이사야가,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남긴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미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후손들에게, 씨앗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 것이다.

(2) 그리고 스바냐에 나오는 두 번째 개념이 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향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그래도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겨둔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런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의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후대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부리고 거역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는가?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내라고 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교파가 얼마나 나누어져서 싸우는지, 총회장이 되어서 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다. 너무 싸움만 하길래, 화가 너무 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당신들 때문인 줄 알고' 하고 나왔다. 그러나 그 속에도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사가,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언약이 분명해야 한다.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다.

(3)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펼치는 것을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한다. 이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누리면서, 운동으로 전개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회개운동이다. 심판이 올 것이니까 회개하자고 외쳐야 한다. 이것이 이사야의 운동이었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망해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다. 그 렘넌트가 일어난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앗수르 애굽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가? 올 수 있다. 산업에 어려움이 왔는가? 올 수 있다.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가? 괜찮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이사야는 계속 말씀하고 있다. 언약 공동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2. 렘넌트 운동의 방법

이사야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승리할 수 있는가?

(1) 이사야는 계속 부르짖기를,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라고 했다. 하나님 믿어야만 산다는 것이다. 택한 백성 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사상이 분명히 들어있다. 메시아에 대

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왕이시며 종이신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 설교 잘 해요, 장로님 좋아요'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본질적인 도를 전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만 하니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3) 세 번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 언약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도록 남겨두신다는 말이다. 씨를 남겨둔다는 말이고, 정말 언약붙잡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나만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찬양대에, 당회에, 여전도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총회가 조용해져 버렸다. 안정이 된 것이다. 돈이 남아돌게 되었다. 맨날 빌리러 다니고 할 필요가 없지 않다.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잘 하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식물총회라고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더라. 괜찮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한다. 머리좋은 사람, 잔꾀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책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판과 구원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전달하시고 있는데, 이 비밀을 붙잡고 간수하고 전수하는 사람이 렘넌트인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렘넌트가 무엇이며, 렘넌트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했다. 어렵지 않다.

(1) 내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보여주면 된다. 될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맥추감사주일을 지냈지 않다. 보여주는데 '아, 이렇게 어려운 데도 아버지는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믿지 않다. 37년 동안 이야기했었다. 허리가 휘청하도록 감사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못 봤다. 그것을 한 번만 보면 아이들에게 심겨져 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언약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렘넌트 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리게 되면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다. 내가 붙잡은 언약, 내가 붙잡은 믿음,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2) 언약을 붙잡은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렘넌트다.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다. 시대가 변하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내가 언약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체를 이야기하라.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스알야숨이다. Remnant will return. 렘넌트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는 반드시 돌아오는 날, 회복되는 날, 새로 세워지는 날이 온다. 우리교회에 이런 렘넌트가 자라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루터기 운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주님, 이 운동의 두 개념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세상의 심판도, 타락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주권과, 그리스도와, 렘넌트 사상을 믿고, 언약을 담대히 붙잡고, 언약의 후대를 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